

# F. Kafka의 “Die Verwandlung”에 나타난 疎外(Entfremdung) 研究

權 五 常\*

## 目 次

- |                          |              |
|--------------------------|--------------|
| I. 序 論                   | b) 사회로부터의 소외 |
| II. 本 論                  | c) 자기 소외     |
| 1. 소외의 概念                | 3. 變身의 의미    |
| 2. “Die Verwandlung”의 소외 | III. 結 論     |
| a)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              |

## I. 序 論

“Kafka의 作品世界”<sup>1)</sup>는 難解하다는 定評이 나 있다. 또한 그의 “不條理”의 世界는 논리적인 思考로는 이해가 곤란하며, 現實世界와 非現實世界의 얽혀진 상호 침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幻想의 世界이고 어디까지가 現實의 世界인지 그 구별이 어렵다. 뚜렷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작품의 內容은 독자에게 많은 暗示를 주지만,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敘述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非可視的이고 非現實的으로 나타날 때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

1) Martin Walser: Beschreibung einer Form. Versuch über Franz Kafka, Carl Hanser Verlag, München 1978, S. 68.:

Die Geschaffenheit der Kafkaschen Welt ist die conditio sine qua non aller Wiederholbarkeit. Was einer vorhandenen Welt entnommen ist, was für Erscheinungen in ihr repräsentativ sind, ist einmalig, unaustauschbar, weil es individuell ist. Aus der Geschaffenheit der Kafkaschen Figuren resultiert weiterhin ihr radikaler Mangel an Entwicklungsmöglichkeit.

\* 人文大學 專任講師

非可視的이라는 것이 “本質的”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S. Exupery<sup>2)</sup>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表現은 항상 상징성을 띄고 있고(bildhaft), 교훈적(parabolisch)이어서 해석의 多樣性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만큼 論難이 분분한 문학작품도 드물 것이다. 그의 작품의 해설에는 神의 심판과 은총이라는 神學的 해석, 극한 상황에 있어서의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이라는 實存主義的 해석, “아버지와의 갈등”(Vater-Komplex)에서 창조적 원동력을 끌어내려는 心理主義的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의 해설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W. Emrich에게는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Realismus)로, 사회주의 계열에게는 사회주의 작품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의 作品의 주된 테마(Thema)에 對해서도 O. Mann은 “出口없는 狀況”(Ausweglosigkeit)으로, F. Beißner는 “疎外”(Entfremdung)로, W. H. Sokel은 “거대한 存在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逆說的인 해석이지만 그의 文學의 심오성이 바로 이 難解性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문학이 現代文明이 낳은 인간상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있는 現代狀況, 현대인의 不安感, 疎外感, 거대한 존재와의 투쟁에서 좌절하는 人間像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데에 상당수의 해석들이 일치하고 있다 하겠다.

1912년에 完成, 1915년에 Kafka 자신에 依해 발표된 작품 “Die Verwandlung”에는 “人間的 存在方式”의 하나인 疎外 問題가 취급되고 있다.

이미 近代社會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공동체(Gemeinschaft)의 연대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고 개인적 利害의 중요성이 표면화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개의 事物이 지니는 독자적인 意味나 價値가 捨象되어 버리고 人間을 포함한 모든 것이 量的인 비교 대상으로 격하되고 교환가치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物化現象(Verdinglichung)이 촉진되었다.

고도의 産業化가 이루어진 現代에 이르러 근대사회가 지닌 否定的인 要素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인간은 일체의 유대를 상실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獨自性(Identität)까지도 상실한 自己疎外(Selbstentfremdung)에 빠져 現代文明의 거대한 매카니즘과 관료조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視角을 상실한 채 무력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社會의 소외현상에 대해서 Kafka는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될 사이없이 증대하는 군중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점차 고독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개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ja, der Mensch ist trostlos, weil er inmitten der ständig anwachsenden Massen von Minute zu Minute immer mehr und mehr vereinsamt.)<sup>3)</sup>

또 現代 産業社會의 Taylor system과 분업체제, 그것들이 수반하는 인간의 “物化” 現象에 대해서도 그는 G. Janouch와의 對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 Saint Exupery: le petit Prince, Karl Rauch Verlag, Düsseldorf 1956, S.72.:  
Das Wesentliche ist für die Augen unsichtbar.

3) Gustav Janouch: Gespräch mit Kafka, Fischer Verlag GmbH, Frankfurt a. M. 1981, S.192.

“Leo가 나에게 산업사회에서의 Taylor system과 분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박사님, 당신은 그러한 체제 속에서는 인간이 노예화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상입니다. [...] 모든 창조의 가장 숭고하고 가장 범해서는 안되는 부분, 즉 시간이 불순한 기업적 利害의 그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 이처럼 심하게 능률화된 삶이란 바라던 부와 이득 대신에 굶주림과 비참함만이 자랄 수 있는 소름끼치는 저주로 가득차게 됩니다.”

“[...] 삶의 큰베어 벨트는 사람을 어디로 운반해가지만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물체,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Leo erklärte mir den Taylorismus und die Arbeitsteilung in der Industrie.“

„Das ist eine schreckliche Sache.“

„Sie denken dabei, Herr Doktor, an die Versklavung der Menschen?“

„Es handelt sich um mehr als das. (...) Der erhabenste und am wenigsten abtastbare Teil aller Schöpfung, die Zeit, wird in das Netz unreiner Geschäftsinteressen gepreßt.(...) So ein vertaylorisiertes Leben ist ein grauenvoller Fluch, aus dem nur Hunger und Elend an Stelle des gewünschten Reichtums und Gewinnes erwachsen können.(...)”

„(…) Das laufende Band des Lebens trägt einen irgendwohin—man weiß nicht wohin. Man ist mehr Sache, Gegenstand—als Lebewesen.”<sup>4)</sup>

Kafka의 이러한 시대비평적 視角을 우리는 주인공 Gregor Samsa의 “직업에 대한 관계, 가족에 대한 관계, 자신에 대한 관계”<sup>5)</sup>를 서술하고 있는 作品 “Die Verwandlung” 속에서 “疎外”라는 概念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소외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Text를 비교 연구하기로 한다.

## II. 本 論

### 1. 疎外(Entfremdung)의 概念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편화되어 광범위하게 使用되고 있는 疎外는 그 概念이 歷史적으로는 물론이고 동시대적으로도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E. Fromm은 疎外 概念의 淵源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간의 우상 숭배에서 찾아가 하면, G. Lichtheim은 3세기의 新플라톤주의자인 Plotinus의 理論 가운데서 그 연원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I. Meszaros는 이를 유태적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찾으면서 그 근거를 신약성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sup>6)</sup>

4) Ebd. S.132.

5) Heinz Politzer: Franz Kafka. Der Künstler, Suhrkamp Verlag, Frankfurt a. M. 1978, S.110.

6) 鄭文吉: 疎外論研究, 文學과 知性社, 서울 1982, S.17.

L. Feuerbach(1804~72)에 의하면 人間은 現世에서 보다도 來世에서 보다 나은 生活을 가질 수 있다는 信仰(Glaube) 때문에 자기 자신과 現世에 전념하지 못하며 來世에 대한 믿음으로 因해 疎外된다는 것<sup>7)</sup>이다.

마르크스-레닌 철학사전(Das Marxistisch-Leninistische Wörterbuch der Philosophie)은 “疎外”를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

인간과 인간 사이의 關係들이 일들, 사물들 사이의 關係로 나타나고, 인간들의 물질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생산품들(Produkte), 사회적 狀況들, 시설[제도]들, 이념들이 인간에게 생소한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勢力들로 등장하는 歷史的 社會的 종합 상황.

(Gesellschaftliches Verhältnis, historisch-gesellschaftliche Gesamtsituation, in der die Beziehungen zwischen Menschen als Verhältnisse zwischen Sachen, Dingen erscheinen und in der die durch materielle und geistige Tätigkeit dem Menschen hervorgebrachten Produkte,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 Institutionen und Ideologien dem Menschen als fremde, sie beherrschende Mächte gegenüberreten.)<sup>8)</sup>

上記 定意를 고려해 볼 때 疎外概念은 “物化”(Verdinglichung) 現象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즉 산업사회(Industriegesellschaft)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 개개인이 그의 人格(Personalität)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能力과 技能에 따라 평가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인간이 기계와 상품에 밀려 한갓 資本增殖의 수단이나 方法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간은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고독과 고립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고립 내지 고독은 “疎外”라는 概念의 중요한 構成要素로서 오로지 상호간의 利害關係로만 맺어진 “Gesellschaft” 指向的인 현대사회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疎外의 概念 해설들 가운데에 잘 요약된 것은 무엇보다도 T. Anz의 “Literatur der Existenz”에 나오는 해설이 아닐까 한다. 그에 의하면 疎外概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fremd”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성립된 概念들은 그 意味로 볼 때 지금까지 實存文學의 代名詞처럼 사용되어 왔다. “Heimat”는 意味論적으로 “Fremde”와 대조를 이룬다.

故郷(Heimat)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주변세계가 친근감이 없으며 따라서 생소한(fremd) 것이다. 자기에 익숙해 있지 않은 世界(Bereich), 즉 생소한 世界에서는 인간은 不安感을 느끼고 方向을 잡지 못하며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에게 생소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7) Herman Stadler / Karl Dickkopf(hrsg.): Literatur, Fischer Kolleg 8, Fischer Verlag, Frankfurt a. M. 1973, S. 121. :

Den Begriff verwendet der Philosoph L. Feuerbach: Der Glaube an ein besseres Leben nach dem Tode hindert den Menschen daran, sich auf sich selbst und auf die Gegenwart zu konzentrieren: Er entfremdet sich durch den Jenseitsglauben.

8) Zitiert nach Thomas Anz: Literatur der Existenz, J. 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Stuttgart 1977, S. 62.

세계는 무질서하고(chaotisch), 무의미한(sinnlos)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웃들이 자기에게 생소하게 되면 그는 고독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생소함이 극대화되면 그것은 敵意와 威脅으로 보이며 공포(Angst)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Die um “fremd” gruppierten Begriffe decken sich in ihrer Bedeutung weitgehend mit dem bislang rekonstruierten “Lexikon” der Existenzliteratur. Heimat steht in semantischem Kontrast zu Fremde. Außerhalb der Heimat ist einem die Umwelt nicht mehr vertraut, sie ist einem fremd.

In Bereichen, mit denen man nicht vertraut ist, die einem also fremd oder sogar unheimlich sind, fühlt man sich unsicher, orientierungslos, verloren, ohne Halt. Was einem fremd ist, versteht man nicht; es erscheint chaotisch und sinnlos. Sind einem die Mitmenschen fremd geworden, fühlt man sich einsam. Die Radikalisierung der Fremdheit zur Feindlichkeit oder Bedrohung erzeugt Angst.)<sup>9)</sup>

上記의 概念으로 설명되는 狀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1910년경의 文學은 이와 같은 소외적인 상황을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T. Anz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疎外の 概念은 일종의 역사적 現實態가 되어버렸다. 역사적 학문은 원래부터 역사적 現實態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경험들을—다른 곳에서는 그 부정성으로 인해 소외의 개념으로 규명되었던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험들—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나아가 중요한 것은 1910년경의 文學이 이 개념의 現實態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Der Begriff Entfremdung ist zu einer Art geschichtlichen Realität geworden, der sich eine historische Wissenschaft nicht von vornherein entziehen kann; schon gar nicht eine Arbeit, die Erfahrungen zum Gegenstand hat, die in ihrer Negativität vielfach zum Inhalt haben, was andernorts unter diesem Begriff erörtert worden ist. Entscheidend ist darüber hinaus, daß die Literatur um 1910 an der Realität dieses Begriffs selbst teilhat.)<sup>10)</sup>

여기에서 동시에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개념들이 바로 Kafka의 “Die Verwandlung”에서도 잘 이해될 수 있는 “失郷”(Heimatlosigkeit), “不確實性”(Unsicherheit), “無所屬感”(Orientierungslosigkeit) 그리고 “無力”(Machtlosigkeit) 등이다.

K. Marx는 그의 초기 저서 [경제학·철학초고]에서 人間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4개 분야의 예를 들고 이들 분야들에 대한 人間の 關係를 疎外라 부르고 있다:

1. “생소한 그리고 자기 위에 군림하는 對象으로서의 노동생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
2. “노동 내부에서의 생산행위에 대한 노동의 관계. 이 관계는 생소한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닌 행위로

9) Thomas Anz: a. a. O. S. 60.

10) Ebd. S.60.

- 서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인 것이다. [...] (=“자기 소외”)
3.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연적, 정신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관계이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생소한 존재”로 만든다. “노동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정신적 존재”를 생소하게 느껴도록 하는 것이다.
  4. 인간의 다른 인간들에 대한 관계. 인간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 자기 활동, 자기의 類的 存在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는 인간의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인 것이다.
1. „Das Verhältnis des Arbeiters zum Produkt der Arbeit als fremden und über ihn mächtigen Gegenstand.“
  2. „Das Verhältnis der Arbeit zum Akt der Produktion innerhalb der Arbeit. Dieses Verhältnis ist das Verhältnis des Arbeiters zu seiner eigenen Tätigkeit als einer fremden, ihm nicht angehörigen. (...)“ (=Selbstentfremdung)
  3. Als Folge davon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 seinem natürlichen und geistigen Wesen. Die entfremdete Arbeit macht den Menschen „zu einem ihm fremden Wesen“. „Sie entfremdet dem Menschen seinen eigenen Leib“ und „sein geistiges Wesen“.
  4. Das Verhältnis des Menschen zu anderen Menschen. „Die unmittelbare Konsequenz davon, daß der Mensch dem Produkt seiner Arbeit, seiner Lebenstätigkeit, seinem Gattungswesen entfremdet ist, ist die Entfremdung des Menschen von dem Menschen.“<sup>11)</sup>

한편, 1910년경의 文學에 표현된 存在의 體驗들(Existenzerfahrungen)은 疎外에 관련된 事項들을 3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 人間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主體”(Subjekt)라는 概念이 問題視되며 이 主體를 둘러싼 자기 자신의 주체, 다른 주체, 사회, 가족, 자연 등에 의한 소외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1. 社會로부터의 主體의 소외,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他人들에 대한 自我의 파괴된 關係와 주로 大都市에서 볼 수 있는 現代社會의 現實에 대한 主體의 문제화된 관계이다.
  2. 外界로부터의 人間 主體의 소외.
  3.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여기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일부가 자기의 또 다른 일부분을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다. 대체로 思索의 自我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自我가 자연적 自我 또는 언제나 되풀이되어 남에 의해 해석된 그런 원래의 본래의 핵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1. Die Entfremdung des Subjekts von der Gesellschaft. Hier geht es einmal um die gestörten Beziehungen des Ichs zu anderen Menschen, aber auch um das problematisch gewordene Verhältnis des Subjekts zur modernen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wie sie sich ihm vor allem in der Großstadt darbietet.
  2. Die Entfremdung des menschlichen Subjekts von der äußeren Natur.
  3. Die Entfremdung des Subjekts von sich selbst. Hier empfindet ein Teil der Person einen anderen Teil als fremd. Meist handelt es sich um die Entfremdung eines reflektierenden oder eines gesell-

11) Ebd. S.63.

schafflich geprägten Ichs von dem naturhaften Ich oder einem wie immer interpretierten “eigentlichen” Wesenskern.)<sup>12)</sup>

Kafka의 作品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이 겪는 疎外的인 狀況은 Kafka 자신의 가정, 사회, 혈통적 여건과 생활환경을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Kafka야말로 자신의 경험을 누구보다도 잘 作品에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Kafka에 대한 다음과 같은 傳記的 설명은 너무도 실감있는 表現이라고 하겠다:

生の 뿌리를 박은 Kafka의 大地는 체코이면서 공간의 위치를 점하는 肉體는 猶太人이고 무한대로 하늘을 날오는 정신세계는 독일이다. 독일인인 까닭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코인으로부터는 유태인으로 경멸을 받고, 자식으로 아버지의 支配下에 있는 가정에서 疎外되고, 유태인으로 기독교에서 隔絶되고 무신론자로서 유태교 신봉자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예술인으로서 일반대중에게 理解되지 못한 Kafka는 유태인이기에는 너무나 독일인이고 독일인으로서는 너무나 체코인이고 체코인이기에는 너무나 유태인이라는 二律背反의 化身이다.<sup>14)</sup>

K. Wagenbach는 Kafka의 主人公들이 겪는 고독(Vereinsamung)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Kafka에 있어서 “人間的 가장 致命的인 病”인 孤立은 주로 自身の 大學時節과 法院實務時節에 익히 알게된 Prag 주변 世界의 결과이다.

Kafka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변 세계에 反對하는 決定을 내렸는데 이 주변 세계는 散文 作品의 文體에 결정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다. [...] Kafka 作品의 主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는 Prag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섬 사람같은 閉鎖性을 들 수 있다. 이를 우리가 원한다면 現代人의 疎外의 典型이라 해도 좋다.<sup>15)</sup>

以上에서 설명한 作品의 內外的(Das Autobiographische/Das Werkimmanente)인 疎外的의 概念을 가지고 作品 “Die Verwandlung”에 나타나는 疎外 現象에 접근하기로 한다.

## 2. “Die Verwandlung”의 疎外

主人公 Gregor Samsa는 家庭과 社會(會社)로 부터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非人格化된 狀態를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채 청산과 가족들의 生計를 위해 회사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적인본연의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自己疎外的의 狀況을 겪게 되는 것이

12) Ebd. S. 64.

13) Martin Walser: a. a. O. S. 9.

14) 韓鳳欽: Franz Kafka의 難解性과 그 構成要素, 人文論集 第8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울, 1967, S. 260.

15) Klaus Wagenbach(전영애 역): 카프카, 흥성사, 서울, 1981, S. 62.

b) 社會(혹은 職場)로부터의 疎外

앞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Gregor는 어느 織物販賣會社의 外販員으로서 매일같이 旅行을 해야 하는 고된 生活을 계속한다. 그것도 새벽 4시에 집을 출발 5시에 기차를 타야하고 만일 그 기차를 놓치는 경우 社長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Gregor가 5시 기차를 탔는지 如否를 감시하는 給使가 있어서 그것을 社長에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5년 동안 아직 단 한번도 알아본 일이 없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여 결근신고라도 한다면 社長은 보험회사의 의사를 동반하고 나타나서 진찰을 시키고 질병이 痲痺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의사의 말을 근거로 아버지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sup>25)</sup>

Gregor는 社長의 立場에서 보면 매상고를 올리는 데에 필요한 一種의 會社機具에 不過하다. Gregor는 人間으로서의 存在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이며, 社勢擴張을 위한 하나의 道具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의 수레바퀴”<sup>26)</sup> 속에서 Gregor는 道具로 轉落, 철저히 “物化”(verdinglicht)됨으로써 疎外되고 있는 것이며, 또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現代 產業社會의 단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事實은 다음과 같은 支配人(Prokurist)의 言辭에서도 나타난다. 會社에 출근한 지배인은 7시가 조금 지나자 Gregor의 집으로 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인, 다른 의미로는 생각할 수가 없군요. 아무쪼록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장사하는 사람들은—幸이건 不幸이건 간에—몸이 多少 불편한 것 짚은 會社를 위해서 참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Anders, gnädige Frau, kann ich es mir auch nicht erklären, hoffentlich ist es nichts Ernstes. Wenn ich auch andererseits sagen muß, daß wir Geschäftsleute—wie man will, leider oder glücklicherweise,—ein leichtes Unwohlsein sehr oft aus geschäftlichen Rücksichten einfach überwinden müssen.)<sup>27)</sup>

몸이 조금 不便한 것 짚은 會社의 事情을 고려해서 참아야 하는 것이다. 사소한 건강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人間보다도 會社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이 會社組織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 支配人은 Gregor에게 최근의 그의 판매부진을 들추어내어 기능인으로서의 그의 能力不足을 다음과 같이 詰責한다.

25) Ebd. S. 57f.

26) Heinz Politzer: a. a. O. S. 111.

27) Franz Kafka: a. a. O. S. 62.



자네의 판매 활동이 최근에 아주 만족스럽지 못했어. 물론 季節로 봐서 요즈음은 수요가 덜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장사를 할 수 없는 季節은 있지도 않으며 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네. 잠자君.

(Ihre Leistungen in der letzten Zeit waren also sehr unbefriedigend; es ist zwar nicht die Jahreszeit, um besondere Geschäft zu machen, das erkennen wir an; aber eine Jahreszeit, um keine Geschäft zu machen, gibt es überhaupt nicht, Herr Samsa, darf es nicht geben.)<sup>28)</sup>

人間으로서의 Gregor는 存在하지 않는다. 技能人으로서의 力量만이 문제되고 평가되는, 그리하여 철저하게 道具化되어 疎外되고 있는 것이다.

### c) 自己疎外

自己疎外라는 概念은 독일 고전주의 관념론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나 실존주의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Wilhelm von Humboldt, Schiller, Fichte와 Hegel의 사상에서 처음 나타난 바 있으며 이어서 Feuerbach와 Marx에게서 나타는 이 概念은 항상 個人이 人間性 혹은 인간의 “類的存在”(Gattungswesen)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本質로부터 소외될 때 스스로에게서도 소외되는 것이다.

청년 Marx는 人類의 本質이 자유로운 生産行爲에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類的存在는 문자 그대로 대상인 客體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노동에서 산출된 이 사물들은 이제는 세계의 客體들로서 그 생산자와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類는 세계창조적 혹은 세계변형적 행위에 의해 定義된다. 그것은 생산적 발명에 의한 자연의 인간화 행위이다. 이러한 실천이 진정으로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결정적이어야 한다. 노동은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하며 외부적 必要性이나 다른 사람의 命命에 의해 指示되어서는 된다. 노동이 진정으로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요소를 지녀야 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체적 보상과 만족을 주어야 한다. Marx에 의하면 노동 그 자체를 위해 또 노동이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동할 수 있는 이러한 自由는 인간의 생산을 동물의 생산과 구별시켜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은 오직 육체적인 必要의 強制에 의해서만 생산한다. 반면에 인간은 육체적 필요가 없을 때

28) Ebd. S. 63.

29) Karl Marx: Frühe Schriften, I. Bd., hrsg. v. Hans-Joachim Lieber u. Peter Furth, Cotta Verlag, Stuttgart 1962, S. 568. Zitiert nach Walter H. Sokel 「마르크스에서 신화로, 임철규편역: 카프카와 마르크스주의자들, 도서출판 까치, 서울, 1986, S. 318f.

에도 생산하며 오직 이런 자유 안에서만 창조적이다. [...] 이러한 생산이 인간의 능동적인 類的存在이다. 그것에 의해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창조물이며 현실의 것으로 나타난다.<sup>29)</sup>

노동이 그 자체의 보상으로 나타날 때에 한해서 인간은 진정 인간적이다. 노동이 단지 경제적 인 必要性에 따라 부과될 때 노동자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으로부터 疎外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인간의 自己疎外에 대한 이와 같은 Marx의 概念은 공장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에게 주어지는 임금이나 수입만을 위해 고용된 경우의 모든 노동을 포함한다. 노동자는 그의 노동이 창조적인 충동과 욕망을 포함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非人間化되는 것이다. 요컨대 自己疎外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의 人權을 상실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는 상황<sup>30)</sup>을 말하는 것이다.

以上的 자기소외에 대한 定義에 立脚해서 볼 때 주인공 Gregor는 會社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즉 外판원의 직업을 가짐으로써 本然의 自己自身을 상실하는 자기소외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다.

會社에서 근무할 때나 또는 판매를 위한 旅行中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집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에조차도 Gregor는 직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가 첫 기차를 놓치자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집에 찾아 온 支配人에게 어머니는 그의 業務에 관한 熱性を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 아이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지배인님,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Gregor가 기차를 놓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머리 속에는 장사 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밤에 한번도 외출을 않는다고 얼마나 제가 성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시내에서 지낸 것이 이제 일주일이나 되었읍니다만 매일 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답니다. 그리고는 책상머리에 잠자코 앉아서 신문물을 보거나 아니면 열차시간표를 연구한답니다.

((...), „ihm ist nicht wohl, glauben Sie mir, Herr Prokurist. Wie würde denn Gregor sonst einen Zug versäumen! Der Junge hat ja nichts im Kopf als das Geschäft. Ich ärgere mich schon fast, daß er abends niemals ausgeht; jetzt war er doch acht Tage in der Stadt, aber jeden Abend war er zu Hause. Da sitzt er bei uns am Tisch und liest still die Zeitung oder studiert Fahrpläne. (...)"<sup>31)</sup>

그의 머리 속은 오직 外販業務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그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는 것은 열차의 접속관계이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本來性を 유지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

잠시도 여유를 주지 않고 끝없는 작업만을 강요하는 현대 산업사회는 모든 人間的인 것을 말

30) Herman Stadler/ Karl Dickkopf(hrsg.): Ebd. a. a. O. S.121. :

Für Marx liegt die Entfremdung darin, daß der Arbeiter, der seine Arbeitskraft verkauft, sich seines Menschseins entäußert, also nicht mehr er selbst ist.

31) Franz Kafka: a. a. O. S.62.

살하고 있는 것이다. Gregor는 조그마한 태만도 용서하지 않은 자기의 직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

어찌해서 Gregor는 조그마한 게으름만 피워도 금방 의심받는 이러한 회사에 근무하도록 팔자를 타고 났을까?

(Warum war nur Gregor dazu verurteilt, bei einer Firma zu dienen, wo man bei der kleinsten Versäumnis gleich den größten Verdacht faßte?)<sup>32)</sup>

Gregor는 절망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出口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Gregor는 父母의 빛을 갓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家長으로서의 부담감과 직장의 상사, 동료들의 불신에 찬 態度 속에서 직장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직장세계에 대한 혐오감과 자신과의 단절 즉 자기 소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生計를 책임지고 있는 그로서 父母의 부채를 갚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부모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사표를 써냈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서 내가 마음먹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굴러 떨어졌을 걸. [...] 그 일은 꼭 한번 하고야 말겠어. 나의 人生에서 하나의 큰 전환이 될 것이다.

(Wenn ich mich nicht wegen meiner Eltern zurückhielte, ich hätte längst gekündigt, ich wäre vor den Chef hin getreten und hätte ihm meine Meinung von Grund des Herzens aus gesagt. Vom Pult hätte er fallen müssen! (...), mache ich die Sache unbedingt. Dann wird der große Schnitt gemacht.)<sup>33)</sup>

계속해서 그는 고된 노동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소외의 상황을 감내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즉 그는 世人(das Man)<sup>34)</sup>의 法則에 계속 얽매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3. 變身の 意味

Gregor Samsa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자신이 흉칙한 벌레로 변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32) Ebd. S. 61.

33) Ebd. S. 57.

34)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72, S. 117ff. :

現存在(Dasein)는 世界 속에 被殺되어진 世界存在(In-der-Welt-Sein)인데 세계 내에서 他者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를 상실하는 非本來的인 存在方式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世人”으로서 平均化되고 주체성이 상실된 中性者이며 규정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Als Gregor Samsa eines Morgens aus unruhigen Träumen erwachte, fand er sich in seinem Bett zu einem ungeheueren Ungeziefer verwandelt.)<sup>35)</sup>

여기에서 흉칙한 벌레란 “鐵甲같이 딱딱한 등, 겹겹으로 주름잡힌 배, 뚱뚱한 몸뚱이에 비해서 여러개의 다리가 달린”<sup>36)</sup> “투구풍뎅이”(Käfer)를 말하는 것이다. 이 투구풍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투구풍뎅이로의 변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투구풍뎅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W. Emrich는 이 동물이 “잠재의식적, 몽환적 세계, 인간의 思考 이전의 상태, 인간 정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前人間的 存在를 나타낸다.”<sup>37)</sup>고 말하면서 투구풍뎅이를 실제의 그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W. H. Sokel은 “투구풍뎅이는 적나라하고 순수한 自我의 형상(Bild)이고 상징(Symbol)이다.”<sup>38)</sup>라고 말하고 있다. 또 金巖鎭 教授에 의하면 “Die Verwandlung”에 나오는 투구풍뎅이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醜怪한 生命體를 상징하고 있으며, 실제로 肉眼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다. 갑옷과 같은 딱딱한 겹겹으로 중무장한 이 투구풍뎅이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閉鎖的, 방어적, 고집적인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Gregor의 투구풍뎅이로의 變身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도 W. Emrich는 “Gregor의 투구풍뎅이로의 變身이 최종적으로 志向하는 것은 “Ein Bericht für eine Akademie”(1919)에 나오는 원숭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自由에의 脫出’이고 인간의 ‘未知의 食糧’에의 동경이다.”<sup>40)</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W. H. Sokel은 “自我의 分裂이 變身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W. H. Sokel은 Gregor의 變身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變身은 동물의 이야기는 아니다. Gregor Samsa는 결코 말하는 동물이 아니라 침묵하는 동물로 변한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事態가 현대의 日帝生活의 배두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정확한 본문 분석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事態는 自我의 分裂과 抑壓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Die Verwandlung zum Beispiel gehört nicht zu den Tiergeschichten. Gregor Samsa ist kein sprechendes Tier, sondern ein in tierische Verstumung verwandelter Mensch. Dieser Vorgang vollzieht sich im Rahmen des modernen Alltagslebens und beruht, wie eine genaue Textanalyse zeigen wird, auf dem Prinzip der Ich-Spaltung und Verdrängung.)<sup>41)</sup>

35) Franz Kafka: a. a. O. S. 56.

36) Ebd. S.56.

37) Wilhelm Emrich: Franz Kafka, Akademische Verlagsgesellschaft Athenaion, Wiesbaden 1975, S.122.

38) Walter H. Sokel: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Fischer Verlag, Frankfurt a. M. 1976, S. 89.

39) 金巖鎭: Franz Kafkak의 Die Verwandlung 연구(I), 사대논총 17집, 서울대출판부, 서울 1978, S.152.

40) Wilhelm Emrich: a. a. O. S.124.

41) Walter H. Sokel: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S.21.

本稿에서는 主人公 Gregor Samsa의 투구풍뎡이이로의 變身을, 투구풍뎡이 자체가 旅行에 不適當한 신체적 構造를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外販員으로서의 그의 生活方式(Lbensweise)에 대한 一種의 “Protest”<sup>42)</sup>로 보려고 한다.

Gregor는 어느 날 아침 不安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변신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변신 자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 잠을 청함으로써 이 어리석은 일들을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이다:

좀더 잠을 청함으로써 이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잊어버렸으면 어떨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Wie wäre es, wenn ich noch ein wenig weiterschliefe und alle Narrheiten vergäße,” dachte er.)<sup>43)</sup>

그러나 곧 이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外販員으로서의 자기의 生活方式에 대한 “Protest”가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아, 나는 왜 이런 힘든 직업을 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旅行을 해야 한다. 業務에서 오는 不安感이 本店에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 외에도 여행의 피로움, 열차의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보잘 것 없는 식사, 항상 바뀌어 마음을 줄 수 없는 對人關係가 나에게서 따르다. 악마라도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견어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Ach Gott,” dachte er, „was für einen anstrengenden Beruf habe ich gewählt! Tag aus, Tag ein auf der Reise. Die geschäftlichen Aufregungen sind viel größer, als im eigentlichen Geschäft zu Hause, und außerdem ist mir noch diese Plage des Reisens auferlegt, die Sorgen um die Zuganschlüsse, das unregelmäßige, schlechte Essen, ein immer wechselnder, nie andauernder, nie herzlich werdender menschlicher Verkehr. Der Teufel soll das alles holen!”)<sup>44)</sup>

그는 外販員 生活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 바와 같이 그는 이 生活을 父母 때문에 당장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는 父母를 위해서 노예와 같은 不幸한 生活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참오감을 일으키는 가련한”<sup>45)</sup> 투구풍뎡이의 모습으로의 변신을 통해서 外販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림으로써 Gregor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노예와 같은 生活을 강요하는 억압에 대해서 “Protest”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흉측한 투구풍뎡이의 모습은 지금까지 Gregor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던 “Protest의 具體的인 發見”<sup>46)</sup>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Kindlers Lexikon, dtv, München 1974, S.9904 :

Gregor protestiert gegen seine Lebensweise als Reisender, und der Protest drückt sich sinnfällig in seiner Verwandlung zum Käfer aus, die ihn für jede Reisetätigkeit untauglich macht.

43) Franz Kafka; a. a. O. S.56.

44) Ebd. S.56f.

45) Ebd. S.85.

46) Kindlers Lexikon: S.9904 :

(...) seine abstoßende Käfergestalt bringt seine unglückliche, geknechtete Existenz und seinen langen unterdrückten Protest zum Ausdruck.

이제부터 그가 행하고 있는 Protest의 內容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가 그의 가족에 대한 Protest이다. 이미 언급된 生活態度로 因해 가족들은 전적으로 Gregor에게만 생활비를 책임지게 행동함으로써—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Gregor를 철저하게 虐殺시키고 있는 것이다. Gregor가 출장을 지체하자 빨리 일어나라는 가족들의 催促<sup>47)</sup> 이와같은 학대[혹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會社가 파산하자 Gregor는 열심히 일하여 가족들의 生計를 꾸려나간다.<sup>48)</sup>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노력[또는 혹사]의 대가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는 일종의 自負心<sup>49)</sup>도 갖는 것이다.

아버지의 부채 상황과 가족들의 生計를 위한 Gregor의 이러한 外販員 生活은 그러나 자기 희생이며, 동시에 부모를 위한 노예와 같은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굴욕적인 자기 희생에서 겉으로는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겠지만 노예와 같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Protest는 이미 오래 전부터 Gregor의 意識의 밑바닥에 잠재해 있었고 다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여기에서 노예와 같은 처지는 그가 가족들로부터 받는 非人格의인 待遇, 즉 그가 처해 있는 疎外的 狀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둘째는 社會[또는 會社]에 대한 Protest이다. Gregor는 조그마한 怠慢도 용납하지 않는 會社의 非情한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rotest를 하고 있다 :

어째서 Gregor는 조그마한 게으름만 피워도 금방 의심받는 이러한 會社에 근무하도록 팔자를 타고났을까? [...] 꼬치 꼬치 캐어묻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급사를 시켜도 되는 일이 아닐까? 꼭 지배인이 몸소 나타나서 물어파야만 되는 일일까? 그래서 수상쩍은 일이 있으면 그 조사는 반드시 지배인의 판단력에만 맡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껴없는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져야 한단 말인가?

(Warum war nur Gregor dazu verurteilt, bei einer Firma zu dienen, wo man bei der kleinsten Versäumnis gleich den größten Verdacht faßte? (...) Genügt es wirklich nicht, einen Lehrlingen nachfragen zu lassen—wenn überhaupt diese Fragerei nötig war—, mußte da der Prokurist selbst kommen, und mußte dadurch der ganzen unschuldigen Familie gezeigt werden, daß die Untersuchung dieser verdächtigen Angelegenheit nur dem Verstand des Prokuristen anvertraut werden konnte?)<sup>50)</sup>

會社는 오직 營利만을 추구해서 社員을 철저하게 학대, 虐殺시킬 뿐이며, 社員 개개인의 사정은

47) Franz Kafka: a. a. O. S.58.

48) Ebd. S.75.

49) Ebd. S.71. :

“Was für ein stilles Leben die Familie doch führte,” sagte sich Gregor und fühlte, während er starr vor sich ins Dunkle sah, einen großen Stolz, darüber, daß er seinen Eltern und seiner Schwester ein solches Leben in einer so schönen Wohnung hatte verschaffen können.

50) Ebd. S.61.

추호도 고려해주지 않는다. 社員은 철저하게 非人間化되고 道具化되어 조직의 일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Gregor의 變身은 이와 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가 處해 있는 疎外에 대한 Protest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人間的인 待遇를 받지 못하고 非人格化되어 노예처럼 학대받고 있는 자기 자신의 不幸한 存在, 환언하면 가족을 위해 고된 직장의 업무세계 속에 투여되어 본래의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린 自己疎外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자기의 存在狀況에 대한 자기비판 내지 Protest가 變身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Ⅲ.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Die Verwandlung”의 主人公 Gregor Samsa가 겪은 疎外의 狀況을 Text를 通해 살펴보았다. Gregor는 부모의 부채를 갚고 가족들의 生計를 꾸려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 아래서 고된 外販員生活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가족부양자”로서의 가치밖에 없다. 그는 또 社會에서는 회사조직의 일부로서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잠시도 쉬지 못 하고 曠사를 당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윤추구의 수단일 뿐이다. 그는 人間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 하고 한갓 도구로 전락, 物化되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外판원으로서 社會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것이다.

한편 그는 上述한 바와 같이 存在方式에 대한 “Protest”로서 “투구똥멍이”로 變身을 하고 만다. 이 Protest에 대응해서 가정과 사회가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학대를 중단하고 그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면 그는 투구똥멍이에서 다시 인간으로 환원될 수 있었을 것이다. 투구똥멍이로 변신한 Gregor는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가족의 측면에서 보면 害食者이며, 無用之物이 되어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즉 그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만다. 그 때문에 가족들이 당했던 心的 苦痛은 그가 죽은 후에 그들이 느끼는 안도감에서 잊볼 수 있다. 아버지는 Gregor가 죽은 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sup>51)</sup>고 말한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그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화창한 봄날을 즐기기 위해 교외로 소풍을 떠나는 것이다.<sup>52)</sup>

Kafka는 時代의 否定的인 面을 대표하는 데에 일생을 바친 작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격은 전혀 갖지 않고 태어났으며, 내가 아는 한, 인간적인 약점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약점으로-이 점에 있어서는 그것은 거대한 힘이다.-나는 나에게 매우 가까

51) Ebd. S.87.: Nun, jetzt können wir Gott danken.

52) Ebd. S.99.

이 있으며 내가 그것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나의 시대의 부정적인 면을 힘차게 들어 올렸다.

(Ich habe von den Erfordernissen des Lebens gar nichts mit gebracht, so viel ich weiß, sondern nur die allgemeine menschliche Schwäche. Mit dieser—in dieser Hinsicht ist es eine riesenhafte Kraft—habe ich das negative meiner Zeit, die mir ja sehr nahe ist, die ich nie zu bekämpfen, sondern gewissermaßen zu vertreten das Recht habe, kräftig aufgenommen.)<sup>53)</sup>

그는 자기의 측량할 수 없이 연약한 심리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식, 언어, 문화의식등의 차이에 의해 고립된 Prag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당시의 人間存在를 위협하는 모든 어두운 면을 강하게 경험하도록 운명을 타고났던 것이다.

그는 1908년부터 노동자 재해보험 협회에서 근무했는데, 그의 임무는 회사들을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이 등급의 결정에 대한 기업가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또 노동자의 재해방지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그의 직책상 그는 노동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특히 공장 노동자들의 技能化, 非人間化 같은 사회의 否定的인 측면을 감지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sup>54)</sup>

Kafka는 本 作品 “Die Verwandlung”에서 生の 부정적인, 어두운 면의 하나인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人間이 처해 있는 소외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Protest를 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있다 할 것이다.

53) Franz Kafak: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hrs. v. Max Brod, Fischer Verlag, Frankfurt a. M. 1980, S. 89.

54) Hartmut Binder: Leben und Persönlichkeit Franz Kafkas. In: Hartmut Binder: Kafka—Handbuch I, Alfred Kröner Verlag, Stuttgart 1979, S. 340.



## Zusammenfassung

### Eine Studie zu dem Begriff “Entfremdung” anhand der Erzählung “Die Verwandlung” von Franz Kafka

*Kuon O—sang*

In der Erzählung “Die Verwandlung”, die seit Anfang 1913 abgeschlossen vorlag, im November 1915 als Band 22/23 der Reihe “Der jüngste Tag” veröffentlicht wurde, ist das Problem “Die Entfremdung” behandelt.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wird der Wert des einzelnen Menschen nicht nach seiner Persönlichkeit bestimmt, sondern nur nach seiner Fähigkeit und dem Nutzen, der aus ihm gezogen werden kann.

Dies bedeutet, daß der Mensch seiner Menschlichkeit, seiner Würde und seines Wertes als Mensch beraubt und verdinglicht wird. Die Verdinglichung ist im allgemeinen als einer der wichtigsten Bestandteile der Entfremdung betrachtet.

Man arbeitet und verdient dadurch Geld, um für das Auskommen seiner Familie zu sorgen. Der Lohnarbeiter muß sich seines Menschseins entäußern, indem er seine Arbeitskraft verkauft. Er ist dann also nicht mehr er selbst. Er entfremdet sich durch die Arbeit und verliert seine Identität und seine Individualität.

In der Erzählung “Die Verwandlung” führt der Protagonist Gregor Samsa ein schweres Leben als Handelsreisender, um für den Unterhalt seiner verschuldeten Familie zu sorgen. Er opfert sich für seine Familie. Trotzdem erweist sich die Liebe der Familie zu ihm als bloße Folge seiner Nützlichkeit als “Ernährer”. Sie gilt nur seiner Funktion, nicht seiner Person.

In der Arbeitswelt(od. Firma) ist er zu pausenloser Arbeit gezwungen. Von dem Standpunkt der Firma gesehen, ist er nur ein Mittel zur Verfolgung des Geschäftsgewinns. Er ist nicht als Mensch behandelt. Er wird zum Mittel, also verdinglicht.

Er muß sich ganz der Geschäftsreise befleißigen, um seine Familie zu unterhalten, wodurch er sein eigenes Leben, d. h. seine Individualität und seine Identität verliert.

Gregor protestiert durch die Verwandlung gegen sich selber und seine Umwelt: seine abstoßende Käfergestalt bringt seine “unglückliche, geknechtete Existenz und seinen langen unterdrückten Protest” grotesk zum Ausdruck. Weil sie seine Reise unmöglich macht, ist die Verwandlung zum Käfer ein “Protest gegen sich selber”, d. h. seine bisherige Lebensweise(seine Entfremdungssituation) als Reisender.

Er protestiert gegen seine Familie. Die Familie hat Gregor unterdrückt, weil sie ihn sklavisch für sich hat arbeiten lassen.

Er protestiert gegen die Firma(od. die Gesellschaft). Die Firma hat ihn für nur ein "Mitglied eines Systems" gehalten und ihn nur für den Gewinn der Firma ausgebeutet.

Er protestiert gegen sich selber und seine "unglücklich geknechtete Existenz", weil er wegen der schweren Geschäftsreisen sein eigenes Leben nicht führen kann.

Es wäre keine Lösung für den Protest des Helden zu finden; die Familie nimmt die Unterdrückung und Mißhandlung gegen ihn nicht wahr, und zwar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gibt es wegen ihres Mechanismus keine Aussicht, mit der Mißhandlung aufzuhören. Wenn seine Familie und die Gesellschaft mit der bisherigen unmenschlichen Behandlung aufhören und ihn menschlich behandeln würden, könnte er in die menschliche Gestalt zurückwandeln.

Kafka ist ein Dichter, der die negativen Seiten der Zeit vertritt. Die Situationen, in denen sich der Dichter befunden hat, haben ihn sie erkennen lassen. Er hat in der Erzählung "Die Verwandlung" die Entfremdungssituationen beschrieben, die vo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verursacht ist. Er protestiert durch die Lebensweise des Protagonisten Gregor Samsa gegen diese Situationen unseres Zeitalters.